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주요 동향

◇ 미국, 양호한 고용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상승률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 10월 실업률 5.8%로 2008년 7월來 최저치 기록

※ 실업률(%): 6.2(7월) → 6.1(8월) → 5.9(9월) → 5.8(10월)

- 10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21.4만 명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전월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세 유지

※ 비농업부문 고용증가인원(만명): 24.3(7월)→18.0(8월)→24.8(9월)→21.4(10월)

- 10월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시간당 임금상승률 : 2.1(7월) → 2.1(8월) → 2.0(9월) → 2.0(10월)

◇ 러시아,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자유변동 환율제 도입(11.10일)

- 미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 및 주요 수출품인 유가 급락에 따라 사상최고치 기록

※ 루블화/미달러 환율 : 35.5(7월) → 36.8(8월) → 39.4(9월) → 42.2(10월)

- 이에 따라 자유변동 환율제를 예상보다 2개월 앞서 긴급 도입하고 기준 금리도 인상함

- 당초 내년 1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환율방어 조치가 실패함에 따라 투기세력 유입 방지 및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 도입

- 통화가치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10.31일, 8.0%→9.5%)

※ 기준금리 인상 추이(%) : 7.0(3월) → 7.5(4월) → 8.0(7월) → 9.5(10월)

주요 동향

◇ 브라질, 9월 재정적자 사상 최대치 기록

- 9월 재정적자는 204억 헤알로 사상 최대치 기록
 -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5개월 연속 적자 기록
 - 금년 9월까지 재정수지 누적액도 157억 헤알 적자로 전환됨
- ※ 재정수지 누적액(억 헤알) : 173(6월) → 151(7월) → 47(8월) → -157(9월)

◇ 중국, 사상 최초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 가능

- 올해 중국 FDI 유출액이 전년대비 11% 이상 늘어나 1,200억 달러를 상회해, 사상최초로 유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상무부, 중국세계화센터)
- ※ FDI 유출액(억 달러) : 688('10년) → 746('11년) → 878('12년) → 1,078('13년)
-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M&A 등을 통해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미국, 영국 등은 견실한 성장세 유지하나, 유로존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은 지연되며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전망
- 위험요인 : 주요국 통화정책 다변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선진국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분	2014		2015	
	5월(%)	11월(%)	5월(%)	11월(%)
세계	3.4	3.3	3.9	3.7
미국	2.6	2.2	3.5	3.1
유로존	1.2	0.8	1.7	1.1
일본	1.2	0.9	1.2	1.1
중국	7.4	7.3	7.3	7.1
한국	4.0	3.5	4.2	3.8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① 외환시장

구 분	'13년말	'14. 10. 31	'14. 11. 7	전주비
₩/US\$	1,055.4	1,068.5	1,093.7	25.2
₩/100¥	1,002.3	963.1	948.3	△14.8
CNY/US\$	6.0618	6.1135	6.1229	0.0094
¥/US\$	105.30	110.95	115.33	4.38
US\$/€	1.3736	1.2564	1.2378	△0.0186

② 채권시장

구 분	'13년말	'14. 10. 31	'14. 11. 7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86	2.14	2.14	-
미국 국채(10년)	3.03	2.34	2.30	△0.04

③ 주식시장

구 분	'13년말	'14. 10. 31	'14. 11. 7	전주비
한국 KOSPI	2,011.34	1,964.43	1,939.87	△24.56
미국 DJIA	16,576.66	17,390.52	17,573.93	183.41

④ 해운시장

구 분	'13년말	'14. 10. 31	'14. 11. 7	전주비
BDI 지수*	2,247	1,428	1,437	9
HRCI 지수**	497.5	533.8	536.6	2.8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US\$/배럴)

유 종	'13년말	'14. 10. 31	'14. 11. 7	전주비
WTI유 현물	98.99	80.71	78.72	△1.99
Brent유 현물	108.34	85.13	83.36	△1.77
두바이유 현물	103.96	84.27	79.67	△4.60

2

이슈: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 당행은 기재부의 위탁을 받아 '99년부터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작성 중인바,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액) '13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1조 4,107억 달러 기록
 - '06년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07년 2조 달러를 초과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투자가 급감하여 최근 수년간 1.5조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중
 - 미국의 테이퍼링 개시로 인한 투자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2년 감소세에서 '13년 증가세로 전환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투자액	11,712	14,676	17,117	13,467	14,107	4.8%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경제권별 동향)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에서(유출) 개발도상국으로(유입) 진행중이나, 최근 투자자로서 개발도상국의 비중 증가중 ('08년 16.9%→'13년 32.2%)

<2013년 경제권별 해외투자액 구성>

(억 달러)

구 분	투자액	비 중	투자유치액	비 중
선진국	8,574	60.8%	5,656	39.0%
개발도상국	4,541	32.2%	7,784	53.6%
체제전환국	992	7.0%	1,080	7.4%

- (선진국) '13년 해외투자 정체가 지속되며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한 8,574억 달러 기록.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들의 對 선진국 투자 증가로 투자유치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5,656억 달러를 기록
- (개발도상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자로 부상하며 투자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541억 달러 기록. 투자유치액은 7,7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의 53.6%를 차지

<투자(유치)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규 모	투 자			투자유치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1,000억 달러 초과	미국, 일본	중국		미국	중국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스위스, 독일	홍콩, 영국령버진군도	러시아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영국령버진군도	러시아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캐나다, 스웨덴 등	한국, 싱가포르 등		스페인, 호주 등	한국, 멕시코 등	

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액) '13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95억 달러 기록
 - '0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07년 200억 달러를 초과 하면서 '13년 300억 달러에 근접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정체중인 세계 투자흐름과는 달리 성장세 지속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 자 액	240	207	246	290	280	295
증 가 율	7.3%	△13.6%	19.0%	17.8%	△3.3%	5.1%
세 계 순 위	22	18	16	17	14	13

- (경제권별 구성)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은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선진국 앞 비중은 5.6%p 높고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은 6.3%p 낮음.
 -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아, '13년 투자대상 상위 5개국(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앞 투자비중이 55.2%에 달함(세계 평균 38.5%).

- (업종별 구성) 광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비중이 세계 대비 높으며, 제조업 투자가 감소중인 세계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일정 수준의 제조업 투자를 지속중

* 세계 제조업 투자비중 : ('10) 48.3% → ('11) 44.5% → ('12) 40.3% → ('13) 37.6%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비중 : ('10) 28.4% → ('11) 30.7% → ('12) 28.9% → ('13) 32.0%

- (진입방식별 구성) '13년 M&A 투자 비중은 22.5%로 세계(52.4%) 대비 월등히 낮으며, 최근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임.

* M&A투자 비중 : ('10) 29.7% → ('11) 25.3% → ('12) 23.3% → ('13) 22.5%

3.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 경영실적

- (분석대상) '13년말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금융보험업 현지법인 8,182개사 중 자료제출법인 5,738개사 대상(투자잔액 기준 전체 현지법인 42,596개사의 70.1% 해당)

- (경영실적)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익성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안정성은 개선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현지법인		국내기업		
	2012	2013	2012	201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1.8	10.7	5.1	2.1
	총자산증가율	22.1	9.3	5.1	4.6
수익성	영업이익률	3.6	3.6	4.1	4.1
	당기순이익률	2.2	1.8	2.5	2.0
안정성	부채비율	169.9	161.4	147.6	141.0
	차입금의존도	25.7	25.5	31.9	31.5

자료: 당행 데이터베이스, 한국은행 '2013 기업경영분석'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21.8%→10.7%) 및 총자산증가율(22.1%→9.3%)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며 성장세가 전년보다 둔화
- (매출구성) 업종별로는 제조업(47.6%)과 도소매업(41.4%)이 전체 매출액의 89.0%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3.5%)과 미국(16.4%)이 전체 매출액의 49.9%를 차지

-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3.6%를 기록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당기순이익률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1.8% 기록
 - 도소매업은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였으나, 제조업(3.2%→2.8%)과 광업(3.2%→△1.3%)의 수익성이 하락
 - 중국 투자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3.1%→3.5%)되었으나 미국 투자는 영업외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1.4%→0.9%)
- (안정성) 부채비율 161.4%, 유동비율 130.1%, 차입금의존도 25.5%로 안정성지표가 모두 전년대비 개선

<한국, 미국, 일본의 2012년 해외 현지법인 경영지표 비교>

(%)

구 분	현지법인			국내기업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매출액증가율	21.8	0.8	9.2	5.1	4.0	△0.5
영업이익률	3.6	n.a.	5.2	4.1	7.0	2.9
당기순이익률	2.2	16.8	3.1	2.5	6.2	1.7

자료: (미국) www.commerce.gov, www.bea.gov (일본) www.mof.go.jp, www.meti.go.jp

⇒ 우리나라 현지법인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성장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음.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모기업에 비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모기업 대비 낮음

- (투자효과) 투자수익률, 배당금수취액, 무역수지개선효과 모두 개선
 - (투자수익률)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모두 증가하며 전년대비 0.5%p 상승한 12.5%의 투자수익률 시현
 - (배당금) 한국투자자 앞 지급배당금은 54.5억 달러로 전년 42.7억 달러 대비 27.6% 증가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및 배당금>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수익률 (A/B)	배당금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2013년	10,923	5,719	275	16,917	135,801	12.5	5,453
2012년	10,211	4,284	201	14,696	122,465	12.0	4,274

- (무역수지개선효과) 현지법인과의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69.3%로 전년대비 8.4% 상승
- 우리나라 현지법인앞 수출액은 2,212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39.5% 차지

<현지법인의 수출입 유발효과>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잔액 (A)	수 출 (B)	수 입 (C)	순수출 (D=B-C)	무역수지 개선효과 (D/A)
2013년	135,801	221,179	127,039	94,140	69.3
2012년	122,465	204,146	129,619	74,528	60.9

4.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지위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었으나, 투자구성 측면에서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M&A투자 촉진 등이 필요

* '13년 우리나라 수출액 세계 7위, 무역규모 9위, 해외직접투자규모 13위

- 생산기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하드웨어 투자에서 발전하여, IT·문화·금융 등의 소프트웨어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추진

* '13년 서비스업 투자비중 : 세계 59.8%, 우리나라 45.0%

- M&A투자는 빠른 시장진입, 시너지 발생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는 해외투자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기업통합전략을 준비하여 해외M&A에 적극 참여
- 현지법인 경영전략을 성장위주에서 수익위주로 재편하여 현지법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단순히 현지에서 조달하는 원료 및 임금의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지 사정에 맞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확인자	팀 장 이윤관
작성자	선임조사역 김윤희

<참고자료 1>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미 국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3,083	2,670	3,044	3,967	3,669
선진국	2,028	2,113	2,552	3,067	2,709
(EU)	1,464	1,401	1,852	2,028	1,664
개발도상국	1,018	554	528	879	969
체제전환국	27	4	△ 16	17	16
3대 투자대상국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버뮤다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 일 본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1,280	747	563	1,144	1,225
선진국	730	355	297	628	772
(미국)	432	107	91	144	321
개발도상국	547	388	262	513	446
체제전환국	3	4	4	3	8
3대 투자대상국	미국, 영국, 폴란드	미국, 호주, 중국	미국, 중국, 호주	미국, 영국, 핀란드	미국, 중국, 영국

□ 중 국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559	565	688	746	878
선진국	28	70	109	134	135
개발도상국	521	489	567	600	700
(홍콩)	386	356	385	356	512
체제전환국	11	7	12	12	43
3대 투자대상국	홍콩, BM*, 남아공	홍콩, 호주, 케이만군도	홍콩, BVI, 케이만군도	홍콩, BVI, 케이만군도	홍콩, 미국, 카자흐스탄

* 영국령 버진군도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 국	3,867	1	3,669	1	3,383	1
일 본	1,075	2	1,225	2	1,357	2
중 국	746	7	878	4	1,010	3
러시아	668	8	488	8	949	4
홍 콩	958	5	881	3	915	5
영국령 버진군도	564	10	641	6	686	6
스위스	478	13	450	9	599	7
독 일	809	6	796	5	575	8
캐나다	521	12	554	7	426	9
네덜란드	395	15	2	69	374	10
스웨덴	298	16	289	13	332	11
이탈리아	536	11	79	26	316	12
대한민국	297	17	306	12	291	13
싱가포르	234	18	134	20	269	14
스페인	411	14	-39	188	260	15
아일랜드	-11	188	185	17	228	16
룩셈부르크	77	32	30	35	216	17
영 국	1,066	3	349	11	194	18
노르웨이	198	21	197	16	179	19
대 만	127	24	131	22	143	20
오스트리아	218	19	170	19	139	21
말레이시아	152	22	171	18	136	22
멕시코	126	25	224	14	129	23
케이만군도	116	28	132	21	127	24
칠 레	202	20	223	15	109	25
덴마크	126	26	79	27	91	26
쿠웨이트	44	40	32	34	83	27
카타르	60	35	18	43	80	28
콜롬비아	83	30	-6	184	76	29
태 국	66	34	128	23	66	30

<참고자료 3>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투자유치액	순위	투자유치액	순위	투자유치액	순위
미 국	2,237	1	1,605	1	1,875	1
중 국	1,239	2	1,210	2	1,239	2
영국령버진군도	584	8	722	4	923	3
러시아	550	9	505	8	792	4
홍 콩	961	4	748	3	766	5
브라질	666	5	652	5	640	6
싱가포르	503	11	611	6	637	7
캐나다	396	12	430	10	623	8
호 주	652	6	555	7	498	9
스페인	283	16	256	13	391	10
멕시코	233	20	176	17	382	11
영 국	511	10	457	9	371	12
아일랜드	235	18	383	11	355	13
룩셈부르크	181	25	95	33	300	14
인 도	361	14	241	15	281	15
독 일	593	7	132	24	267	16
네덜란드	210	21	97	31	243	17
칠 레	234	19	285	12	202	18
인도네시아	192	24	191	16	184	19
콜롬비아	134	30	155	20	167	20
이탈리아	343	15	0.1	162	165	21
태 국	37	51	107	28	129	22
터 키	161	27	132	23	128	23
말레이시아	121	33	100	30	123	24
대한민국	97	38	94	34	122	25
이스라엘	107	35	94	35	118	26
오스트리아	106	37	39	49	110	27
케이만군도	147	28	68	42	105	28
UAE	76	41	96	32	104	29
페 루	82	40	122	25	101	30

<참고자료 4>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지표 추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6.1	25.8	15.6	21.8	10.7
	제조업	10.6	36.3	20.1	25.0	10.4
	중 국	13.1	36.1	24.3	18.8	27.3
	미 국	△9.7	11.2	16.3	36.0	6.4
	총자산증가율	25.7	18.8	18.6	22.1	9.3
	제조업	18.0	17.3	13.5	26.6	8.9
	중 국	23.4	19.6	17.8	21.2	20.2
	미 국	△12.2	12.2	29.1	22.7	14.1
수익성	영업이익률	2.2	3.0	3.6	3.6	3.6
	제조업	3.6	3.6	3.4	4.5	4.5
	중 국	3.6	3.9	3.9	4.3	4.9
	미 국	0.0	1.2	2.8	2.5	2.5
	당기순이익률	1.2	2.0	2.2	2.2	1.8
	제조업	2.5	2.6	2.4	3.2	2.8
	중 국	2.5	3.1	3.4	3.1	3.5
	미 국	△1.4	0.1	1.3	1.4	0.9
안정성	부채비율	178.4	170.5	165.8	169.9	161.4
	제조업	161.2	152.5	141.5	144.9	131.1
	중 국	134.9	136.2	127.8	129.1	119.0
	미 국	246.5	242.7	218.1	220.9	221.9
	차입금의존도	26.2	26.0	25.9	25.7	25.5
	제조업	25.7	24.1	23.7	22.0	21.9
	중 국	22.8	21.6	21.7	21.5	17.3
	미 국	28.6	33.5	35.7	33.4	36.7